

EBS 스팀팩!

2021 수능대비

CONTE

CONTENTS

CHAPTER1. 음운	6
CHAPTER2. 단어	12
CHAPTER3. 문장	18
CHAPTER4. 담화	22
CHAPTER8. 국어사	26
CHAPTER6. 적용학습	30
CHAPTER7. 실전학습	66



CHAPTER1.

010
010

수특 p.187 문제로 이해하기 01 변형

Q01. '구두'에서 'ㄱ, ㄷ'는 분절 음운, '우'는 비분절 음운이다.

(○, ×)

Q02. 'ㄹ'과 'ㄴ'은 조음 방법은 같으나 조음 위치가 다르다.

(○, ×)

Q03. 'ㄴ'은 중모음이자 평순모음이다.

(○, ×)

Q01. X. 자음과 모음은 모두 분절 음운에 속한다.

Q02. X. 'ㄹ'과 'ㄴ'은 모두 양순음(입술소리)이므로 조음 위치는 같다. 그러나 'ㄹ'은 비음, 'ㄴ'은 파열음 중 평음이므로 둘의 조음 방법은 다르다.

Q03. O. 'ㄴ'은 중모음, 전설모음, 평순모음에 속한다.

수특 p.187 문제로 이해하기 02 변형

- Q01.** '발이 아주 넓다.'에서 '발이'는 구개음화를 거쳐 [바치]로 발음된다. (○, ×)
- Q02.** '기어'가 [기여]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
- Q03.** '줄넘기'의 발음 과정에서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 ×)
- Q04.** '밝히다'는 탈락, 축약을 거쳐 [발키다]로 발음된다. (○, ×)

Q01. O. '발이'가 [바치]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ㅍ이 ㅌ를 만나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Q02. X. '기어'가 [기여]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반모음 'ㅣ'가 생겨나는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Q03. X. '줄넘기'는 [줄럼끼]로 발음되며, 이 과정에서 ㄴ이 ㄹ이 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Q04. X. '밝히다'는 [발키다]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되는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탈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 Q01.** '넠다'의 발음 과정에서 유음화와 경음화가 일어나 최종 발음은 [넠따]가 된다. (○, ×)
- Q02.** '걷히다'는 격음화와 구개음화를 거쳐 [거치다]로 발음된다. (○, ×)
- Q03.** 발음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첨가, 비음화를 모두 겪는 단어로는 '꽃잎'이 있다. (○, ×)
- Q04.** '굳히다'는 구개음화 이후에 축약이 발생한다. (○, ×)
- Q05.** '발이랑 눈에 물을 주었다.'에서 '발이랑'의 발음은 [반니랑]이다. (○, ×)

- Q01.** X. '넠다'가 [넠따]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ㄴ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Q02.** O. '걷히다'에서 ㄷ과 ㅎ이 만나 ㅌ이 되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이 ㅌ이 ㄹ을 만나 ㄷ이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최종 발음은 [거치다]가 된다.
- Q03.** O. '꽃잎'은 [꼰닙]으로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ㅈ이 ㄷ으로 변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없던 ㄴ이 생기는 ㄴ첨가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이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Q04.** X. 축약이 먼저이다.
- Q05.** X. [바치랑]이다. '이랑'이 여기서 형식형태소인 조사이기 때문이다.



CHAPTER2.

단어

수특 p.196 문제로 이해하기 01 변형

- Q01.** 품사란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적 특성에 따라 갈래를 나눈 것이다. (○, ×)
- Q02.** 가변어와 불변어는 단어를 수식 기능 유무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 ×)
- Q03.** '이다'는 관계언 중 유일한 가변어이다. (○, ×)
- Q04.** '우리는 미래의 이순신을 기다린다.'에서 '이순신'은 고유명사이다. (○, ×)
- Q05.** '할머니께서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에서 '당신'은 3인칭이다. (○, ×)
- Q06.** '젊다'는 '늙다'와 마찬가지로 동사이다. (○, ×)
- Q07.** '철수가 밥을 먹었다.'에서 단어의 개수는?

- Q01.** ○. 품사는 단어를 형태/기능/의미 특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이다.
- Q02.** ×. 가변어와 불변어는 '수식 기능' 유무에 따른 갈래가 아니라, '활용 여부'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 Q03.** ○.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조사 중 유일한 가변어이다.
- Q04.** ×. 미래의 후손들을 지칭하므로 '보통명사'이다.
- Q05.** ○. 재귀칭은 3인칭이다.
- Q06.** ×. 형용사이다.
- Q07.** 5개. (조사도 단어로 인정한다.)

수특 p.196 문제로 이해하기 02 변형

- Q01.** '여기 내 지갑이 있다.'에서 '있다'는 선어말 어미 '-는-'이 붙을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 ×)
- Q02.** '우리는 그냥 집에 있자.'에서 '있자'는 청유형 표현이므로, 이때 '있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
- Q03.** '기회가 있다.'와 '신이 있다.'는 모두 동사이다. (○, ×)

수특 p.197 문제로 이해하기 03 변형

- Q01.** '기쁨', '슬픔'은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파생된 명사이다. (○, ×)
- Q02.** 명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동사로 파생된 것으로는 '건강하다', '거짓되다'를 들 수 있다. (○, ×)
- Q03.** '낮추다', '박히다'는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동사가 파생된 경우이다. (○, ×)
- Q04.** '낮추다, 넓히다'에는 구조와 품사를 모두 바꾸는 접사가 사용되었다. (○, ×)

- Q01.** ○. 이 문장에서 '있다'는 '있는다'로 쓰면 어색하므로, 선어말 어미 '-는-'이 붙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가 맞다.
- Q02.** ○. 이 문장에서 '있자'의 '-자'는 청유형 어미이며, 따라서 '있자'는 청유형 표현이 맞다. 청유형/명령형 표현이 가능한 것은 동사가 맞다.
- Q03.** ×. 둘 다 존재 상태를 드러내는 형용사이다.

- Q01.** ○. '기쁨', '슬픔'은 '기쁘다', '슬프다'라는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ㅁ'이 붙어 명사로 파생된 것이다.
- Q02.** ×. '거짓되다'와 '건강하다'는 명사 어근 '건강', '거짓'에 각각 접미사 '-하다'와 '-되다'가 붙어 형용사가 파생된 것이다.
- Q03.** ×. '낮추다'는 형용사 '낮다'의 어근에 접미사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파생된 것이 맞다. 그러나 '박히다'의 경우, 동사 '박다'에 접미사 '-히-'가 붙어 동사 '박히다'가 파생된 것이다.
- Q04.** ○.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를 바꿔주며 서술어 자릿수가 늘어나므로 타당하다.

수특 p.197 문제로 이해하기 04 변형

- Q01.** ‘어린이’와 ‘아이’는 서로 의미상 유사하므로 유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 ×)
- Q02.** ‘가야금’은 상위어, ‘현악기’는 하위어이다. (○, ×)
- Q03.** ‘새벽에 닭이 울다.’의 ‘울다’와 ‘철수는 슬픔에 겨워 울었다.’에서의 ‘울다’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 ×)
- Q04.** 식물은 벚나무를 함의한다. (○, ×)
- Q05.** 사람의 ‘다리’와 육교를 지칭하는 ‘다리’는 다의어이다. (○, ×)

수특 p.198 문제로 이해하기 05 변형

- Q01.** ‘ㅈ’는 ‘kk’로 적는다는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의해, ‘벚꽃’은 ‘beotkkot’으로 적는다. (○, ×)
- Q02.**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압구정’은 ‘Apgujeong’으로 적어야 한다. (○, ×)
- Q03.** 체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좁히다’는 ‘jophida’로 적어야 한다. (○, ×)

- Q01.** ○. ‘어린이’와 ‘아이’는 모두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유의 관계에 있다.
- Q02.** ×. ‘가야금’은 하위어, ‘현악기’는 상위어이다. ‘현악기’가 더 포괄적이며, ‘가야금’은 그에 포함된다.
- Q03.** ×. 첫 번째 ‘울다’는 ‘짐승, 벌레, 바람 따위가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두 번째 ‘울다’는 ‘기쁨, 슬픔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아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린다. 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둘은 의미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다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 Q04.** ×. (벚나무가 식물을 함의한다.)
- Q05.** ×. (다의어가 아니라, 동음이의어이다.)

- Q01.** ○. ‘ㅈ’는 ‘kk’로 적는 것이 맞으며, 따라서 ‘벚꽃’은 ‘beotkkot’으로 적는 것이 맞다.
- Q02.** ○.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구정’은 [압꾸정]으로 발음되더라도 ‘Apgujeong’으로 적는 것이 맞다.
- Q03.** ×. 체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좁히다’는 체언이 아닌 용언이므로, 거센소리되기를 반영하여 ‘jopida’로 적어야 한다.



CHAPTER3.

문장

수특 p.206 문제로 이해하기 01 변형

- Q01.** '나는 이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의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다. (○, ×)
- Q02.** 주성분으로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 ×)
- Q03.** '과연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서 '과연'은 독립어에 해당한다. (○, ×)
- Q04.**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에서 '얼음으로'는 보어이다. (○, ×)

수특 p.207 문제로 이해하기 02 변형

- Q01.** '아버지께서 "리모컨 좀 줘."라고 하시다.'를 간접인용절로 바꿀 때, 인용절 속의 서술어 '줘'는 '달라'로 바뀌어야 한다. (○, ×)
- Q02.** '그저께 친구가 나에게 "모레 만나자!"라고 말했다.'를 간접인용절로 바꿀 때, 인용절 속의 시간 표현은 '모레' 그대로 유지된다. (○, ×)
- Q03.** '나는 어제 진우에게 내일 민수의 선물을 고르라고 했다.'를 직접 인용절로 바꾸어 보라.
- Q04.** '그가 나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절로 바꾸어 보라.

- Q01.** X. '이 성적'에서 '이'는 관형어이며, 이 문장에는 부사어가 없다.
- Q02.** X. 필수적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다. 부사어는 언제든지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 Q03.** X. '과연'은 부사어이지 독립어가 아니다.
- Q04.** X. '얼음으로'는 부사어이다.

- Q01.** O. '리모컨 좀 줘'는 '리모컨 좀 달라'처럼 수정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서술어이다.
- Q02.** X. '그저께' 한 말이므로, 간접인용절로 바꾸면 '모레'는 '오늘'이 된다.
- Q03.** X. '나는 어제 진우에게 "모레 민수의 선물을 골라."라고 말했다.
- Q04.** O. 그가 나에게 그가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수특 p.208 문제로 이해하기 03 변형

- Q01.** '그때 비로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에서 '닭이 우는'은 부사절이다. (○, ×)
- Q02.** '그녀는 그가 적금을 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 ×)
- Q03.** '제비는 봄이 오기 전에 떠난다.'에서 관형절이 안겨 있다. (○, ×)

수특 p.208 문제로 이해하기 04 변형

- Q01.** '관계 당국에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 ×)
- Q02.** '선생님, 키가 크시네요.'에서는 불필요한 높임이 사용되었다. (○, ×)
- Q03.** '그 작은 물고기는 다행히 상어에게 먹혀지지 않았다.'에는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다. (○, ×)
- Q04.** '나는 고개가 숙여졌다.'는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다. (○, ×)

- Q01.** X. '닭이 우는'은 부사절이 아닌 관형사절이다.
Q02. O. '그가 적금을 들고 있음'이 명사절이다.
Q03. X.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 Q01.** O. '지연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 '-시키다'가 쓰인 것이다. '지연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Q02. X. '키'를 높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인 것으로, 불필요한 높임은 아니다.
Q03. O. '먹혀지다'는 '먹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Q04. X. '숙이다' 자체가 사동적 표현이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CHAPTER4.

담화

수특 p.210 문제로 이해하기 01 변형

A: 네 옆 책장에 꽂혀 있는 ㉠ 그 책 좀 줄래?

B: ㉡ 이거? 로맨스 소설 아니야?

A: 응, 맞아. 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 너도 로맨스 좋아해?

B: 난 ㉢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

Q01. ㉠, ㉢은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 ×)

Q02. ㉡은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 ×)

Q01. X. ㉠은 '책'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며,
㉢은 '사랑 이야기'의 대용 표현이다.

Q02. O. ㉡은 '책'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 맞다.

수특 p.210 문제로 이해하기 02 변형

Q01. 화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오네. 빨래 널어놓았는데 어떡하지?'라고 (같은 집에 있는 청자에게) 말한다면,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간접 발화일 수 있다.

(○, ×)

Q02. '죄송하지만, 좀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는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 ×)

Q01. ○. 형식은 의문문이나, 실제로는 청자에게 '빨래를 걸어 달라'고 요청하는 간접 발화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Q02. ×. 형식은 의문문이나,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청/명령하는 간접 발화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CHAPTER5.

국어사

수특 p.215 문제로 이해하기 01 변형

Q01. '뽳'이 '뽳'이 되는 과정에서, 어두자음군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Q02. 'ㄱ르치다'가 '가르치다'가 되는 과정에서 없던 모음이 새로 생겨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Q01. ○. 'ㅂ'과 'ㄷ'이 어두에 같이 오는 어두자음군이 소실되어 된소리 'ㅃ'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02. ×. 'ㄱ'가 '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 존재했던 모음인 아래아가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특 p.215 문제로 이해하기 02 변형

부텃 몰썸미 (부처의 말씀이)

Q01. '부텃'에서 과거 관형격 조사가 영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Q02. '몰썸미'를 보면 중세 국어 이어적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

Q01. X. '부텃'에서 관형격 조사는 영형태가 아닌 'ㅅ'으로 나타난다.

Q02. O. '몰썸'과 '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앞말의 ㅁ을 뒤 음절 초성으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가 나타난다.



CHAPTER6.

적용학습

언어 01 음운① p. 218~220 01 변형

Q01. '잡는'이 [잠는]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음운의 조음 위치가 변화하였다.

(○, ×)

Q02. '난로'가 [날로]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음운의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

Q03. '곧이곧대로'에서 '곧이'는 [고지]로 발음되며, 이 과정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

(○, ×)

언어 01 음운① p. 218~220 02 변형

Q01. '끓는[궁는]'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난다.

(○, ×)

Q02. '얹지[안치]'에서는 탈락과 축약이 한 번씩 일어난다.

(○, ×)

Q01. X. 'ㅂ'이 'ㅃ'으로 변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음 방법이 변한 것이다(파열음→비음). 조음 위치는 양순음 그대로이므로 변하지 않았다.

Q02. O. 'ㄴ'이 'ㄹ'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의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비음→유음).

Q03. O. 'ㄷ'이 'ㅈ'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조음 위치도 바뀌고(치조음→경구개음) 조음 방법도 바뀐다(파열음→파찰음).

Q01. O. '끓는[궁는]'에서는 'ㄹ'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Q02. X. '얹지[안치]'에서는 'ㄴ'의 'ㅎ'과 뒤에 오는 'ㅈ'이 만나 'ㅊ'이 되는 축약만 일어난다.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언어 01 음운① p. 218~220 03 변형

- Q01.** ‘밟는[밤는]’의 발음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모두 일어난다. (○, ×)
- Q02.** ‘거기 있던 사람에게 소리쳤다.’에서 ‘있던’의 발음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가 일어난다. (○, ×)
- Q03.** ㄴ첨가가 일어나는 예로는 ‘숨이불[숨니불]’, ‘달는[단는]’이 있다. (○, ×)

언어 01 음운① p. 218~220 04 변형

- Q01.** ‘가자- + -어’가 ‘가져’가 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뒤 하나의 단모음과 하나의 반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
- Q02.** ‘싸우- + -어라’가 ‘싸워라’가 되는 과정에서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
- Q03.** ‘가- + -아라’, ‘아프- + -아서’가 각각 ‘가라’, ‘아파서’가 되는 과정에서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 ×)

- Q01.** ○. ‘밟는[밤는]’의 발음 과정에서 겹받침 ㅂ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ㅁ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Q02.** ○. ‘있던’은 [임뎌]으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받침 ㅌ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뒤에 오는 ㄷ이 ㅌ이 되는 경음화가 적용된다.
- Q03.** ×. ‘숨이불[숨니불]’은 ㄴ첨가의 예시가 맞으나, ‘달는[단는]’은 ㄴ첨가가 아닌 비음화의 예시이다.

- Q01.** ○. ‘가자-’의 ‘ㅣ’는 본래 단모음이지만 ‘가져’가 되면서 반모음 ‘ㅣ’로 교체가 되고 반모음 ‘ㅣ’와 ‘ㄹ’가 ‘ㄹ’라는 이중모음을 이루게 된다.
- Q02.** ×. 단모음 ‘ㅜ’와 단모음 ‘ㅣ’가 만나 이중모음 ‘ㅠ’를 이루고 있다.
- Q03.** ○. ‘가라’에서는 동일 모음 탈락으로 인해 ‘ㅏ’가 탈락하고, ‘아파서’에서는 모음 ‘ㅡ’가 탈락한다.

언어 01 음운① p. 218~220 05 변형

Q01. '흙이다'에서 ㅌ은 뒤에 오는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므로 [ㅈ]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

Q02. '담기다'를 발음할 때, 어간 받침 'ㄹ' 뒤에 'ㄱ'이 오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

Q03. '머리를 감자'와 '감자와 고구마의 차이'에서 앞의 '감자'만이 된소리가 되는 이유는?
(○, ×)

언어 02 음운② p. 221~223 01 변형

Q01. 'ㄱ'과 달리 'ㅇ'은 입술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발음하는 모음이다.
(○, ×)

Q02. 'ㅣ'는 'ㅡ'보다 혀의 높낮이가 낮다.
(○, ×)

Q03. 'ㅐ'는 'ㅑ'보다 혀의 위치가 앞에 있다.
(○, ×)

Q01. X. '흙이다'에서 'ㅌ'이 'ㅈ'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맞으나, '-아-'가 조사가 아닌 접미사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Q02. X. '담기다'에서 'ㄱ'은 파동의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Q03. 된소리가 나려면 용언어간 ㄴ, ㄹ일 때 ㄱ, ㄷ, ㅌ, ㅈ를 만나야 하므로.

Q01. X. 'ㄱ'과 'ㅇ' 모두 원순 모음으로, 입술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발음한다.

Q02. X. 'ㅣ'와 'ㅡ'는 고모음으로, 혀의 높낮이가 모두 높다.

Q03. O. 'ㅐ'는 전설 모음, 'ㅑ'는 후설 모음으로 'ㅐ'의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것이 맞다.

언어 02 음운② p. 221~223 02 변형

- Q01.** ‘같이[가치]’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이 일어난다. (○, ×)
- Q02.** ‘떨지[떨찌]’의 발음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 ×)
- Q03.** ‘뭇뭇만[몽몽만]’의 발음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 ×)

언어 02 음운② p. 221~223 03 변형

- Q01.** ‘얹는[알른]’에서는 ㅎ의 탈락이 일어난다. (○, ×)
- Q02.** ‘쌓고[싸코]’에서는 ㅎ의 교체가 일어난다. (○, ×)
- Q03.** ‘좋네[존네]’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

Q01. X. ‘같이[가치]’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며, 이는 교체에 해당한다. 즉,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Q02. X. ‘떨지[떨찌]’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는 하나 줄어든다.

Q03. X. 음운의 개수는 총 두 개 줄어든다.

Q01. O. ‘얹는[알른]’에서는 ‘ㅎ’이 탈락한 후, ‘ㄴ’의 유음화가 일어난다.

Q02. X. ‘쌓고[싸코]’에서는 ‘ㅎ’과 ‘ㄱ’이 만나 ‘ㅋ’이 되는 축약이 일어난다.

Q03. O. ‘좋네[존네]’에서는 ‘ㅎ’이 ‘ㄷ’이 되는 음절 끝소리 현상, 이 ‘ㄷ’이 뒤의 ‘ㄴ’의 영향을 받아 ‘ㄴ’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거센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언어 02 음운② p. 221~223 04 변형

Q01. '침략[침낙]'에서는 유음의 탈락이 일어난다. (○, ×)

Q02. '너 그 애랑 노니?'에서 '노니'는 유음의 탈락이 일어난 결과이다. (○, ×)

Q03. '석류[성뉴]'에서는 유음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

언어 02 음운② p. 221~223 05 변형

Q01. '오- + -아서'가 '와서[와서]'가 되는 과정에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으며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 ×)

Q02. '서- + -어서'가 '서서[서서]'가 되는 과정에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으며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 ×)

Q01. X. '침략[침낙]'에서는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Q02. O. '노니'는 '놀다'의 어간 '놀-'에 어미 '-니'가 붙어 활용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다.

Q03. O. '석류[성뉴]'에서는 'ㄹ'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Q01. X. 단모음 'ㅇ'과 'ㅏ'가 이중 모음 'ㅗ'로 되었을 뿐, 탈락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Q02. O. 단모음 'ㅏ'와 'ㅑ'가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의 'ㅑ'가 탈락되었으며, 이는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언어 03 단어① p. 224~227 01 변형

㉠ 새벽하늘이 아주 맑다.

Q01. ㉠에서 형태소는 모두 5개이다. (○, ×)

Q02. ㉠에서 단어는 모두 4개이다. (○, ×)

언어 03 단어① p. 224~227 02 변형

Q01. ‘그 신발은 내가 갖겠다.’의 ‘갖겠다’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있다. (○, ×)

Q02. ‘할아버지께서 오시고 계신데.’에서 ‘오시고’에는 문장끼리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다. (○, ×)

Q03. ‘또 다시 슬픈 계절이 왔다.’에서 ‘슬픈’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 (○, ×)

Q01. X. 형태소는 ‘새벽’, ‘하늘’, ‘이’, ‘아주’, ‘맑-’, ‘-다’로 총 6개이다.

Q02. O. 단어는 ‘새벽하늘’, ‘이’, ‘아주’, ‘맑다’로 총 4개이다.

Q01. O. ‘갖겠다’에는 선어말 어미 ‘-겠-’과 어말 어미 ‘-다’가 있다.

Q02. X. ‘오시고’에는 선어말 어미 ‘-시-’와 어말 어미 ‘-고’가 있다. 이때 ‘-고’는 문장끼리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아니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어미일 뿐이다.

Q03. O. ‘슬픈’에서 ‘-ㄴ’은 관형사형 어미이다.

언어 03 단어① p. 224~227 03 변형

Q01. '밤낮 놀기만 한다.'에서 '밤낮'은 부사끼리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 ×)

Q02. '이른바'는 용언의 관형사형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에 해당한다. (○, ×)

언어 03 단어① p. 224~227 04 변형

Q01. '네 앞에 물웅덩이가 있어.'에서 '앞'은 공간적 개념을,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까?'에서 '앞'은 시간적 개념을 함의한다. (○, ×)

Q02. '언덕 아래 있는 병원'에서 '아래'는 물리적 개념을, '그는 나보다 다섯 살 아래다.'에서 '아래'는 추상적 개념을 함의한다. (○, ×)

Q01. X. '밤낮'은 부사이기는 하나, 부사끼리 결합한 것이 아니라 명사 '밤'과 '낮'이 결합하여 부사를 만든 것이다.

Q02. O. '이른바'는 '이르다'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활용형인 '이른'에 명사 '바'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이다.

Q01. O. 첫 번째 '앞'은 실제 공간상의 앞쪽을 의미하고, 두 번째 '앞'은 시간상 미래를 나타낸다.

Q02. O. 첫 번째 '아래'는 실제 공간상의 아래를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두 번째 '아래'는 나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아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언어 03 단어① p. 224~227 05 변형

Q01. '집을 수리하다.'에서 한자어 '수리(修理)하다'는 고유어 '고치다'에 대응한다.

(○, ×)

Q02. '나쁜 체질을 고쳐 보겠다.'에서 고유어 '고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개척하다'이다.

(○, ×)

언어 04 단어② p. 228~232 01 변형

Q01. '이 사람은 누구야?'에서 '이'는 지시적 의미를 지니는 체언이다.

(○, ×)

Q02. '그는 동생만 여섯이다.'에서 '여섯'은 숫자의 의미를 지니는 체언, '여섯 그릇을 배달했다.'에서 '여섯'은 체언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 ×)

Q03. '그만큼 바쁜 사람도 없다.'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 '들리는 만큼 써라.'에서 '만큼'은 조사이다.

(○, ×)

Q01. ○. '수리하다'는 '고치다'에 대응한다.

Q02. X. 여기서 '고치다'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개선(改善)하다'이다.

Q01. X. 여기서 '이'는 체언이 아니라 체언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Q02. ○. 첫 번째 '여섯'은 수사, 두 번째 '여섯'은 수 관형사이다.

Q03. X. 첫 번째 '만큼'은 조사, 두 번째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언어 04 단어② p. 228~232 02 변형

Q01. '아침이 밝는다.'에서 '밝다'는 '는'이 결합할 수 있으므로 동사, '색깔이 밝다.'에서 '밝다'는 '는'이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 ×)

Q02. '어머, 기뻐라.'에서 '기쁘다'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하므로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

언어 04 단어② p. 228~232 03 변형

Q01. '거기에 갔다.'에서 '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그에 대해 말하고 싶다.'에서 '에'는 주격 조사이다. (○, ×)

Q02. '나는 친구하고 백화점에 갔다.'에서 '하고'와 '그는 빨간색하고 보라색을 좋아한다.'에서 '하고'는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 ×)

Q03.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다.'에서 첫 번째 '이'는 주격 조사, 두 번째 '이'는 보격 조사이다. (○, ×)

Q01. ○. '아침이 밝는다.'에서 '밝다'는 '밝는다'가 가능하며, 이는 현재형 표현이다. 현재형 표현이 가능하면 동사로 볼 수 있다. '색깔이 밝다.'에서 '밝다'는 '밝는다'로 쓰면 어색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Q02. ×. 여기서 '기뻐라'의 '-어라'는 명령형 어미가 아닌, 감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어미이다. '기쁘다'는 형용사이다.

Q01. ×. '에'는 항상 부사격 조사로만 사용되는 조사이다.

Q02. ×. 첫 번째 '하고'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두 번째 '하고'는 접속 조사로 쓰였다.

Q03. ○. 첫 번째 '이'는 주어를 만드는 주격 조사, 두 번째 '이'는 '되다' 앞에서 서술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어에 쓰이는 보격 조사이다.

언어 04 단어② p. 228~232 04 변형

- Q01.** ‘국을 식혀 먹었다.’의 ‘식혀’와 ‘치킨을 시켜 먹었다.’에서 ‘시켜’는 발음상으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 ×)
- Q02.** ‘문은 열지 마라.’에서 ‘문은’과 ‘그 개는 무는 버릇이 있다.’에서 ‘무는’은 용언의 활용형들이 발음상으로 동음이의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언어 04 단어② p. 228~232 05 변형

- Q01.** ‘그는 나에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다.’에서 ‘못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쓰였다. (○, ×)
- Q02.**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쓰려면 ‘공부를 못 하다.’처럼 ‘못’과 ‘하다’를 띄어 써야 한다. (○, ×)
- Q03.** ‘아무리 못해도 열 장은 썼다.’에서 ‘못해도’는 형용사로 쓰였다. (○, ×)

- Q01.** ○. ‘식혀’의 발음은 [시켜]이므로, ‘식혀’와 ‘시켜’는 발음상으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 Q02.** ×. ‘문은’의 발음은 [무는]이며, 이는 ‘무는’과 발음상으로 동음이의어가 된다. 그러나 ‘문은’은 용언의 활용형이 아닌, 명사+조사 조합이므로 이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Q01.** ×. ‘-지 못하다’에서 ‘못하다’는 보조용언인데, 앞말의 품사에 따라 그 품사가 결정된다. ‘하지 못하다’에서 본용언 ‘하지(하다)’는 동사이므로, 뒤에 오는 ‘못하다’는 보조 동사이다.
- Q02.** ×.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다면 ‘못하다’처럼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Q03.** ○. ‘아무리 적게 잡아도’라는 의미를 지니는 ‘못하다’는 형용사가 맞다.

언어 05 문장① p. 233~234 01 변형

- Q01.** '설사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부사어 '설사'와 '없다'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 ×)
- Q02.** '우리 체육센터는 회원에게 일체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는 부사어 '일체'와 서술어 '받지 않습니다'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 ×)
- Q03.** '이 선박은 사람과 화물을 태우고 6시에 출발한다.'는 목적어 '화물'과 서술어 '태우고'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이다.
(○, ×)
- Q04.** '시급한 문제는 지금 벌어진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주어 '시급한 ... 사태'와 서술어 '끝날지 모른다.'가 호응하므로 문법적이다.
(○, ×)

언어 05 문장① p. 233~234 02 변형

- Q01.** '한눈에 봐도 그 사람이 저 학교 학생이란 걸 알 수 있다.'에서 '한눈에'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고, '저 학교'는 관형사와 명사가 모두 관형어로 쓰였다.
(○, ×)
- Q02.** '중고매장에서 사온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 확인해 봐.'에서 '중고매장에서 사온'은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기계'를 꾸미고, '제대로'는 '작동하는지'를 꾸민다.
(○, ×)

- Q01.** X. 부사 '설사'는 뒤에 '~다 하더라도' 따위와 함께 쓰여 '가정해서 말하여'와 같은 뜻이다. 이 문장에서는 '결코, 절대로'와 같은 부사가 나와야 서술어 '없다'와 호응을 이룰 수 있다.
- Q02.** X. '일체'는 '전부', '완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부인이나 금지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 '받지 않습니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일체'가 아닌 '일절'이 들어가야 알맞다.
- Q03.** X. '태우고'란 서술어는 '사람과'는 어울리지만 '화물'은 '싣다'란 서술어와 호응을 이룬다.
- Q04.** X. '끝날지 모른다'는 '사태'라는 주어와 호응을 이루므로, 주어 '문제는'에 어울리는 서술어 '것이다', '점이다'가 넣어줘야 적절한 주술호응을 이룬다.

- Q01.** O. '한눈에'는 체언 '한눈'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저 학교'는 관형사 '저'와 명사 '학교'가 모두 뒤에 나온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Q02.** O. '중고매장에서 사온'은 '기계를 중고매장에서 사오다'가 되므로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맞고, '제대로'는 '작동하는지'를 꾸미고 있다.

언어 05 문장① p. 233~234 03 변형

- Q01.** ‘피자를 먹고 코인노래방에 갔다.’는 ‘피자를 먹고’와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
- Q02.** ‘언니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말했다.’는 ‘언니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 달라고’가 직접 인용된 안은문장이다. (○, ×)
- Q03.** ‘그 점포는 소리소문도 없이 문을 닫았다.’는 부사절 ‘소리소문도 없이’가 ‘문’을 꾸며 주는 안은문장이다. (○, ×)

언어 05 문장① p. 233~234 04 변형

- Q01.** ‘㉠책장이 꽉 찼는데도 ㉡책을 사고 있다.’에서 ㉠은 ㉡에 대해 ‘이유/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 ×)
- Q02.** ‘㉠구독을 갱신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했다.’에서 ㉠은 ㉡에 대해 ‘동시 상황’의 의미를 나타낸다. (○, ×)

- Q01.** X. ‘피자를 먹고’와 ‘코인노래방에 갔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Q02.** X. 언니가 발화한 말은 “생일 선물을 사줘.” 등일 것이므로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가 언니가 발화한 내용을 간접 인용한 절이다.
- Q03.** X. ‘소리소문도 없이’는 ‘문’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았다’를 꾸며주는 부사절이다.

- Q01.** X. ㉠은 ㉡에 대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Q02.** X. ㉠은 ㉡에 대해 ‘목적/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언어 05 문장① p. 233~234 05 변형

- Q01.** '저것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다.'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
- Q02.** '그 친구와 놀았던 기억이 남아 있다.'는 관형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
- Q03.** '동생은 옷이 흠뻑 젖도록 땀을 흘렸다.'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

언어 06 문장② p. 236~239 01 변형

- Q01.** '편지를 써 두었다.'의 '써 두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가 된 경우이다. (○, ×)
- Q02.** '생선을 구워 먹었다.'의 '구워 먹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예이다. (○, ×)
- Q03.** '체언+이다'로 서술어를 이룬 문장은 '너 내일 올 거야?'를 예로 들 수 있다. (○, ×)

- Q01.** X. '그린'이 '기린'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명사절은 들어 있지 않다.
- Q02.** O. '그 친구와 놀았던'이 '기억'을 꾸며주는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동격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 Q03.** O. '옷이 흠뻑 젖도록'은 부사절에 해당한다.

- Q01.** O. '써 두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Q02.** X. '구워 먹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하여 서술어가 된 경우이다.
- Q03.** O. '올 거야'의 '거야'는 '것이야'의 구어적 표현으로 의존명사 '것'과 '이다'의 활용형이 결합한 서술어이다.

언어 06 문장② p. 236~239 02 변형

- Q01.**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는 직접 명령문이다. (○, ×)
- Q02.** '7시까지는 예정된 장소에 도착하라.'는 인쇄 매체 등에서 쓸 수 있는 간접 명령문에 해당한다. (○, ×)
- Q03.**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걸으라.'를 간접 명령문으로 바꾸려면 '걸으라'를 '걸라'로 고쳐야 한다. (○, ×)

언어 06 문장② p. 236~239 03 변형

- Q01.** '내가 이 일을 다 하겠어?'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 ×)
- Q02.** '인기 없는 메뉴도 다 팔렸다.'의 '없는'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다. (○, ×)
- Q03.** '그곳에 갔었었다.'에서 '-었-'은 '-었-'에 비해 현재와 비교하여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 ×)

- Q01.** ○. '쌓아라'는 직접 명령문이 맞다.
- Q02.** ○. '도착하라'는 간접 명령문에 해당한다.
- Q03.** X. '걸으라'가 간접 명령문에 해당하므로 '걸라'로 고치지 않고 '걸으라'로 두어야 한다.

- Q01.** X. '내가 이 일을 다 하겠어?'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이 아닌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 Q02.** ○. '없는'의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다. 이때,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예외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때 현재를 나타낸다.
- Q03.** ○. '-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언어 06 문장② p. 236~239 04 변형

- Q01.** '잡다'에 접미사 '-히-'가 붙는 '잡히다'는 피동사나 사동사 모두로 쓰일 수 있다. (○, ×)
- Q02.** '믿기다'는 '믿다'의 사동사이고, '믿어지다'는 '믿다'의 피동사이다. (○, ×)

언어 06 문장② p. 236~239 05 변형

- Q01.** '안경을 쓰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 후 지속'의 의미를 모두 띌 수 있다. (○, ×)
- Q02.** '그는 진료소에 가고 있다'는 중의적 표현이 아니다. (○, ×)

- Q01.** O. '잡히다'는 피사동이 같은 형태로,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에서는 피동사로, '기업주들이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잡히다'에서는 사동사로 쓰이고 있다.
- Q02.** X. '믿기다'는 사동사가 아닌 피동사로, '믿다'의 피동사는 '믿기다', '믿어지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Q01.** O. '안경을 쓰고 있다.'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와 안경을 찬 상태라는 의미로 중의성을 지닌다.
- Q02.** O. 진행상의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언어 07 문장③ p. 240~242 01 변형

Q01. '사과를 깎아 먹다'에서 '먹다'는 본용언이다. (○, ×)

Q02.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난다.'에서 '돌아가신'과 '생각하다 보면'은 '본용언+보조용언'로 구성되어 있다. (○, ×)

언어 07 문장③ p. 240~242 02 변형

Q01.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업으셨다.'에서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 ×)

Q02. '어머니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에서는 '주다'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

Q01. ○. '깎아서 먹다'가 성립되고 '사과를 깎아 사과를 먹다'와 같이 두 용언의 의미가 모두 살아 있으므로 '깎아 먹다'는 '본용언+본용언'으로 볼 수 있다.

Q02. X. '돌아가다'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보조'의 구성이 아니며, 본용언 1개(합성용언)로 볼 수 있다. '생각하다 보면'은 '본+보조'의 구성이 맞다.

Q01. X.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업으셨다.'에는 목적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Q02. X. 해당 문장은 조사 '께'와 '드렸다'를 통해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주체를 높이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언어 07 문장㉓ p. 240~242 03 변형

- Q01.** '너는 이제 죽었다.'는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서는 시간 표현을 나타낸다.
(○, ×)
- Q02.**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좋은 소식이 들려 왔다.'에서 '울더니'의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하는 뜻을 나타낸다.
(○, ×)

언어 07 문장㉓ p. 240~242 04 변형

- Q01.** '멈추지 말고 직진해.'에서 '멈추지'는 주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한 형태이다.
(○, ×)
- Q02.**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서 '잊혀지지'는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와 사동을 나타내는 '-하-'가 결합한 형태이다.
(○, ×)
- Q03.** '공장에서 생산된 의자'에서 '생산된'은 능동사 '생산하다'의 '생산'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 ×)

- Q01.** ○. 확정적 미래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Q02. ○.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사용한다.

- Q01.** ×. '멈추다'의 '-추-'는 사동 접사가 아니다. '멈다'라는 동사는 없다.
Q02. ×. '잊혀지지'는 이중 피동으로 피동 접사 '-히-'와 보조용언 '-어지다'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로 틀린 표현이다.
Q03. ○. '생산되다'는 명사 '생산'에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피동사이다.

언어 07 문장③ p. 240~242 05 변형

- Q01.** 주어의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과제가 너무 많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를 들 수 있다. (○, ×)
- Q02.** '산에 올라가라!'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
- Q03.** '나는 그 문제를 모른다.'는 짧은 부정문으로 쓸 수 없다. (○, ×)

언어 08 담화 p. 243~246 01 변형

- Q01.** 길을 찾는 행인의 '도서관이 어디인지 아세요?'라는 질문에 '네, 알아요.'라고 말을 끝냈다면 발화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 ×)
- Q02.** 앞을 막는 무리에게 '길 좀 갑시다.'라고 말했다면, 청유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명령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

- Q01.** X. 주어의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은 '안 부정문'에 해당한다.
- Q02.** X.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부정 표현은 '-지 않다'가 사용된다. 따라서 '산에 올라가지 마라!'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Q03.** O. '모르다'는 '안 모르다', '못 모르다'와 같이 쓸 수 없고 '모르지 않다'와 같은 긴 부정문으로만 쓸 수 있다.

- Q01.** O. 길을 찾는 행인이 '도서관이 어디인지 아세요?'라고 질문했다면, 그것은 '도서관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의미를 지니는 발화이다. 이것에 '네, 알아요.'라고 대답한다면 발화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 Q02.** O. '길 좀 갑시다.'에서 '-시다'는 청유형 어미인데, 사실 이 발화는 청유가 아닌 명령의 의미(길을 가게 비켜달라)를 지니고 있다.

Q01. '그는 작은 밴드의 보컬이다. 그래서 그의 노래 솜씨는 무척 좋다.'라는 문장에는 '그'의 노래 실력이 화자의 예상과 달랐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

Q02. '그녀는 신입 직원이다. 그러나 그녀의 업무 능력은 제법 뛰어나다.'라는 문장에는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은 뛰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

Q01. '저기에 가 있어라.'에서 '저기'는 지시 대명사이다. (○, ×)

Q02. '그이가 나에게 말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에서 '그이'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 ×)

Q03. '이리저리 다니다.'에서 '이리저리'는 장소의 의미를 지니는 명사이다. (○, ×)

Q01. X. '그래서'라는 접속 표현을 고려할 때, '그'의 노래 실력이 좋을 것을 화자는 이미 예상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Q02. X. '그러나'라는 접속 표현을 고려할 때,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은 부족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Q01. O. '저기'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Q02. O. '그이'는 '그 사람'을 조금 높여 부르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Q03. X. '이리저리'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이쪽 저쪽으로'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명사가 아닌 부사이다.

언어 08 담화 p. 243~246 04 변형

- A: ㉠ 그거 알아? 철수랑 민식이가 어제 크게 싸웠대.
 B: 정말? 나는 ㉡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A: 정말이야. 또 ㉢ 이런 말도 있더라. 그게 사실 혜진이 때문이래.

Q01. ㉠은 앞에 나온 말을 도로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쓰였다. (○, ×)

Q02. ㉡, ㉢은 뒤에 나올 말을 미리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쓰였다. (○, ×)

언어 08 담화 p. 243~246 05 변형

Q01. 친구 사이에서는 ‘네 아들은 잘 지내?’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아드님은 잘 지내시는지요?’로 발화가 수정되어야 한다. (○, ×)

Q02. 같은 직급이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오늘 일찍 퇴근해?’라고 물었다면, 이는 청자와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

- Q01.** X. ㉠은 말을 시작할 때 쓰인 표현이므로 앞에 나온 말을 도로 가리킬 수 없다.
Q02. X. ㉢은 뒤에 나올 말(그게 사실 혜진이 때문이다)을 미리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 맞으나, ㉡은 앞에 언급된 말을 도로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 Q01.** O. 공식적인 상황이라는 상황 맥락에서 높임법의 사용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친구 사이’는 허물없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므로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적인 상황이라면 높임 표현을 사용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Q02. O. 친밀도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직급은 같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자와의 친밀도를 고려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Q01. '새절역'의 '새절'은 '신사(新: 새 신 사: 절 사)'에서 온 말인데, 이는 한자의 뜻을 빌려 적은 방법에 해당한다. (○, ×)

Q02.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방법으로 암호문을 만들 때 '공부해'를 '工味日(工: 장인 공, 味: 부리 주, 日: 해 일)'로 적었다면, '공'과 '부'는 한자의 소리를 빌린 것, '해'는 한자의 뜻을 빌린 것에 해당한다. (○, ×)

※ 다음은 중세 국어에 나타난 모음 조화 예시이다.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의 적절성을 판단하시오.

	중세 국어	현대 국어
Q1.	'도조기', '거부빅'	'도둑의', '거북의'
Q2.	'마곰', '먹음'	'막음', '먹음'
Q3.	'무숨무로', '구름으로'	'마음으로', '구름으로'

Q01.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 ×)

Q02.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 ×)

Q03.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 ×)

Q01. O. 새와 절이 한자의 뜻에, 신과 사가 한자의 음에 해당하므로 '새절'은 한자의 뜻을 빌려 적은 방법에 해당한다.

Q02. X. '공부해'를 '工味日'로 적은 것은 '공'은 한자의 소리를 빌린 것, '부'와 '해'는 한자의 뜻을 빌린 것에 해당한다.

Q01. O. '도죽'은 '이'와 '거북'은 '의'와 결합하므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02. X. '마곰'은 '막+음', '먹음'은 '먹+음'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나타난 예이다. 하나의 형태소 내부가 아닌 두 개의 형태소 결합시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Q03. X. '무숨', '구름'은 하나의 형태소에서 나타난 모음 조화의 예, '무숨+으로', '구름+으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시 나타난 모음 조화의 예이다.

언어 09 국어사 p. 247~250 03 변형

- Q01.** '대왕하 엇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현대역 : 대왕님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는 '-잇-'을 통해 대화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 ×)
- Q02.**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몬져 如來 보습고(현대역 :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는 '-습-'을 통해 문장의 부사어를 높이고 있다. (○, ×)
- Q03.** '그 도조기 後에 닛위여 도죽후다가 ㅈ의 자피니(현대역 : 그 도적이 후에 이어서 도적질하다가 왕께 잡히니)'에는 높임을 표현하는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 있다. (○, ×)

언어 09 국어사 p. 247~250 04 변형

- Q01.** '날도 도코 서루 종용후여(현대역 : 날도 좋고 서로 조용하여)'에서 '똥다'의 활용형 '도코'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예이다. (○, ×)
- Q02.** '아드리 病이 즉재 도커놀(현대역 : 그 아들의 병이 즉시 좋아지거늘)'에서 '도커놀'의 기본형인 '똥다'는 현재의 '좋다'와는 달리 '좋아지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

- Q01.** ○. '-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 청자인 '대왕'을 높이고 있다.
- Q02.** ×. '-습-'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제시된 문장에서 '여래'를 뵈는 것이므로 높임의 대상은 부사어가 아닌 목적어가 된다.
- Q03.** ○. 'ㅈ'은 부사격 조사로 현대어의 '께'에 해당한다.

- Q01.** ○. '똥다'가 '똥고'가 아닌 '도코'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축약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있다.
- Q02.** ○. '도커놀'이 '좋아지거늘'로 쓰이고 있으므로 현재의 '좋다'와는 달리 '좋아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음은 중세 국어의 단어와 현재의 형태를 나란히 적은 것이다. 변화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시오.

	중세 국어	현대 국어
Q1.	섬기다	섬기다
Q2.	숯다	싫다
Q3.	부딪	부딪

Q01. ‘ㅅ’ 다음에 나타난 반모음이 탈락하였다. (○, ×)

Q02. ‘ㅡ’가 전설모음으로 변하였다. (○, ×)

Q03. ‘ㄴ’에 선행하는 자음이 구개음으로 변하였다. (○, ×)

Q01. ‘불장난’과 달리 ‘불세출’의 발음 과정에서 일어난 경음화는 관형사형 ‘-(으)ㄹ’ 뒤 연결되는 평음이 경음화된 경우이다. (○, ×)

Q02. ‘꽃다발’과 ‘꽃다’의 발음 과정에서 일어난 경음화는 파열음의 평음 ‘ㄱ, ㄷ, ㅂ’ 뒤 평음이 올 때 뒤의 평음이 경음화된 경우이다. (○, ×)

Q03. ‘공부할걸’, ‘공부할수록’을 [공부할꺄], [공부할쑤록]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일어난 경음화에 해당한다. (○, ×)

Q01. O. ‘ㄷ’이 ‘ㄴ’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중모음에 나타난 반모음 ‘ㅣ(j)’가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Q02. O. ‘ㅡ’가 전설모음 ‘ㅣ’로 바뀌었다.

Q03. X. ‘ㄴ’에 선행하는 자음 ‘ㄷ’은 구개음 ‘ㄷ’으로 바뀌지 않았다.

Q01. X. ‘불세출’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의 평음이 경음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Q02. X. ‘꽃다발’은 파열음의 평음 ‘ㄱ, ㄷ, ㅂ’ 뒤 평음이 올 때 경음화된 경우에 속하지만, ‘꽃다’는 어간받침 ‘ㅌ, ㄹ’ 뒤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 경우에 해당한다.

Q03. O. ‘공부할꺄’와 ‘공부할쑤록’이 경음화된 것은 ‘-ㄹ꺄’, ‘-ㄹ쑤록’에서 일어난 경음화로, ‘-(으)ㄹ’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일어난 경음화이다.

언어 10 종합① p. 251~253 02 변형

- Q01.** '갈 데를 모르겠다.'의 의존 명사 '데'는 결합할 수 있는 격 조사가 제한적이다.
(○, ×)
- Q02.** '더할 나위 없이 좋다.'의 의존 명사 '나위'는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 ×)

언어 10 종합① p. 251~253 03 변형

- Q01.** '정답다, 사람답다, 꽃답다'에 쓰인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 ×)
- Q02.** '곰곰이, 깊숙이, 더욱이'에 쓰인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어근과 결합하며, 어근과 동일한 품사인 부사를 파생한다.
(○, ×)

Q01. X. '데'는 '데를', '데가', '데에'와 같이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Q02. O. '나위'는 주로 '-을 나위 없다'의 구성으로 쓰이므로,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Q01. O. 접사 '-답다'는 명사 어근 '정, 사람, 꽃'에 붙어 형용사 '정답다, 사람답다, 꽃답다'를 만들고 있으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Q02. X. 접사 '-이'가 부사 어근 '곰곰', '더욱'에 붙어 부사 '곰곰이, 더욱이'를 파생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나, '깊숙이'의 경우 홀로 쓰이지 않는 어근 '깊숙'에 붙어 부사를 파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언어 10 종합① p. 251~253 04 변형

Q01. '슈퍼마켓(supermarket)'은 받침 'ㅅ'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ㅅ'으로 발음된다. (○, ×)

Q02. '워크숍(workshop)'의 받침 'ㅂ'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ㅍ'으로 발음된다. (○, ×)

언어 10 종합① p. 251~253 05 변형

Q01. '산책은 운동도 아니다.'의 '운동도'는 보격 조사 '이/가'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보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 ×)

Q02. '너무 피곤해서 책이 아니 읽힌다.'에서 '책이'는 '아니다' 앞에 있으므로 보어로 볼 수 있다. (○, ×)

Q03.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에서 '운영되다'의 주체인 '학교'가 주어의 기능을 한다. (○, ×)

Q01. X. '슈퍼마켓(supermarket)'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슈퍼마켓]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서술이다.

Q02. X. '워크숍(workshop)'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과 결합시 [워크쇼비], [워크쇼블]과 같이 'ㅍ'이 아닌 'ㅂ'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서술이다.

Q01. X. 보조사가 결합된 '운동도'는 '운동이'로 바꿀 수 있으므로 '운동도'는 보어의 기능을 한다.

Q02. X. 서술어는 '아니다'가 아니라 '읽힌다'이며, '책이'는 주어이다.

Q03. X. '운영되고 있다'의 주체는 '학교'가 아닌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주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운영함'의 주체가 '학교'가 될 수는 있어도, '운영됨'의 주체는 '프로그램'이다.

언어 11 종합② p. 254~259 01 변형

- Q01.** '서울역[서울력]'과 '술잎[술립]'에서는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다. (○, ×)
- Q02.** '삐아[삐씨]'에서는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다. (○, ×)
- Q03.** '얹고[알코]'와 '얹다[안따]'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 (○, ×)

언어 11 종합② p. 254~259 02 변형

- Q01.** '산에 한번 올라가보다'의 '올라가보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이므로 '올라가 보다'로 적을 수 있다. (○, ×)
- Q02.** '바다에 가고 싶다'의 '가고 싶다'는 두 용언 사이에 다른 성분을 넣을 수 있으므로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 ×)

- Q01.** ○. '서울역'과 '술잎'에서는 'ㄴ' 첨가와 교체(ㄴ → ㄹ, ㅍ → ㅂ)가 일어난다.
- Q02.** X. '삐아'에서는 첨가가 아닌 교체가 일어난다. (삐아 → [삐씨] → [삐씨])
- Q03.** X. '얹고'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아닌 음운의 축약이, '얹다'에서는 탈락 후 교체(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Q01.** ○. '올라가다'는 합성용언으로 붙여쓰지만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므로 '올라가 보다', '올라가보다'와 같이 적을 수 있다.
- Q02.** X. '가고 싶다'는 '가고'와 '싶다'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을 넣으면 '바다에 가고 바다에 싶다'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가고 싶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Q01. '길이 막히다'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의 '길'은 다의 관계를 이룬다. (○, ×)

Q02.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할 때, '입학이 어려워서 우리나라 대학은 좁은 문이라는 별명을 듣는다.'의 '문'을 중심 의미, '문이 고장나서 열 수가 없다.'의 '문'을 주변 의미로 볼 수 있다. (○, ×)

Q01. '우체국에서 택배를 붙였다.'에서 '붙였다'는 '부쳤다'로 고쳐야 한다. (○, ×)

Q02.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다.'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 ×)

Q03. '그 일은 힘에 ().'에서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빈칸에 는 '부친다'를 넣을 수 있다. (○, ×)

Q01. X. '열 길 물속'의 '길'은 길이의 단위로, '길이 막히다'의 길과 동음이의 관계를 이룬다.

Q02. X. '문이 고장나서'의 '문'을 중심 의미, '대학은 좁은 문'의 '문'을 주변 의미로 볼 수 있다.

Q01. O.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 상대방에게로 보내다'의 의미는 '붙이다'가 아닌 '부치다'이다.

Q02. X.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라는 의미로 '부치다'를 쓸 수 있다.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다'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Q03. O.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부친다'를 넣을 수 있다.

언어 11 종합② p. 254~259 05 변형

- Q01.** '집에 한 달간 있었다.'의 '있다'는 청유형, 명령형의 종결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 ×)
- Q02.** '돈이 없는 사람'과 '깨어 있는 사람'의 '없는'와 '있는'는 서로 다른 품사이다. (○, ×)
- Q03.** '음악을 듣고 있다.'의 '있다'는 실질적 의미보다 문법적 의미로 쓰인다. (○, ×)

언어 12 종합② p. 254~259 06 변형

- Q01.**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의 '일'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 ×)
- Q02.** '이 주제는 충분히 토의할 거리가 된다.'의 '거리'는 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쓰이는 자립 형태소이다. (○, ×)

- Q01.** ○.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의미의 '있다'는 동사로 청유형, 명령형의 종결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다.
- Q02.** ○. '없다'는 형용사로만 쓰이고, '있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는 보조 동사로만 쓰이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 Q03.** ○. '듣고 있다'의 '있다'는 보조 동사로서, 실질적 의미보다 문법적 의미로 쓰인다.

- Q01.** X. '일'은 의존 명사가 아닌 자립 명사이다.
- Q02.** ○. '거리'는 '내용이 될 만한 재료'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쓰이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이다.

Q01. '부엌'의 발음 과정에서 받침의 격음이 평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 ×)

Q02. '그 앨범은 내가 샀지.'에서 '샀지'의 발음 과정에서는 파찰음이 [ㄷ]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

Q03. '넋'의 발음 과정에서 받침의 두 자음 중 하나의 자음이 교체된다.

(○, ×)

Q01.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에서 '먹였다'의 '-였-'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 ×)

Q02. '사랑하다', '유지하다' 등 접사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용언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한다.

(○, ×)

Q01. ○. '부엌'에서 받침 ㄱ은 격음인데, 이것이 발음 과정에서는 평음 [ㄱ]으로 바뀐다. 따라서 발음은 [부억]이 된다.

Q02. ×. '샀지'는 [샨찌]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파찰음이 아니라 마찰음인 ㅈ이 [ㄷ]으로 교체된다.

Q03. ×. '넋'은 [녁]으로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받침의 두 자음(ㄱ, ㄴ) 중 하나의 자음(ㄴ)이 탈락한다.

Q01. ×. '먹였다'는 '먹이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붙은 '먹이였다'가 줄어든 말이다. 즉, 여기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였-'이 아닌 '-었-'이다.

Q02. ×. '하다'류 용언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다. 그래서 '~하였다' 형태가 되며, 이것은 다시 줄어든 형태인 '~했다'로 실현될 수 있다.

언어 12 종합㉓ p. 260~263 03 변형

- Q01.** ‘그녀는 달콤한 말로 나를 피었다.’에서 ‘피었다’는 준말 ‘뻘다’로 적을 수 있다. (○, ×)
- Q02.** ‘100도 이상이 되야 물이 끓는다.’에서 ‘되야’는 적절한 표기이다. (○, ×)

언어 12 종합㉓ p. 260~263 04 변형

- Q01.**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피동사, 문장의 주체, 주체를 움직이는 ‘남의 힘’이 모두 드러난 피동문에 해당한다. (○, ×)
- Q02.** ‘그는 동생의 안경을 벗겼다.’는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특수한 피동문이다. (○, ×)

Q01. ○. ‘피다’의 어간 ‘피-’에 ‘-었-’이 붙는 경우, 본딴말인 ‘피었다’와 준말인 ‘뻘다’를 모두 쓸 수 있다.

Q02. ×.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어야’가 붙은 ‘외어야’라는 본딴말이나 ‘돼야’라는 준말로 적어야 한다. 어간 ‘-어야’에서 ‘어’ 부분이 탈락한 ‘되야’는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Q01. ×. 주체인 ‘진실’은 나타나 있으나, 이것이 ‘누구에 의해’ 밝혀진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즉, ‘남의 힘’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Q02. ○. ‘벗기다’는 ‘벗다’의 피동사이다. 이 문장은 ‘동생이 안경을 벗었다.’로 능동문을 만들 수 있으므로,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으로 보기 어렵다.

Q01. '그는 케이크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라는 능동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을 만들 때, 능동문의 부사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 ×)

Q02. '주도권은 그들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 때,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생략이 불가능하다. (○, ×)

Q01. '무춤내 제 뜰들 시러 퍼디(마침내 제 뜻을 능히 퍼지)'에서 '퍼디'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표기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Q02. '불휘 기픈 남근(뿌리가 깊은 나무는)'에서 '기픈'을 보면 중세 국어에서 이어적기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Q03. '나뭇 노피(나무의 높이)'에서 '노피'를 보면,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어두에 경음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Q01. X. 대응하는 피동문은 '케이크가 세 조각으로 나뉘었다.'가 된다. 이때 부사어 '세 조각으로'는 그대로 부사어 지위를 유지한다.

Q02. O. 대응하는 능동문은 '그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된다. 이때 주어 '주도권은'은 능동문에서 '주도권을'이라는 목적어로 나타난다. 또한 '주도권을'이라는 목적어를 생략하면 '그들이 잡았다.'가 되어 문법적으로 온전치 못한 문장이 되므로, 이 목적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Q01. X. '퍼디'를 보면 ㄷ이 ㅌ와 만나 ㅌ이 되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Q02. O. '기픈'은 '값-' + '-은'을 이어적은 것이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Q03. X. '노피'에는 어두 경음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것의 현대어 표기인 '높이'에도 어두 경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예시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어두 경음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언어 13 종합④ p. 264~269 01 변형

Q01. ‘날- + -아서’를 ‘날아서’로 적는 것은 표의주기 표기에 따른 결과이다. (○, ×)

Q02. ‘쓰- + -어’를 ‘써’로 적는 것, ‘줄- + -니’를 ‘주니’로 적는 것은 표음주의 표기에 따른 결과이다. (○, ×)

언어 13 종합④ p. 264~269 02 변형

Q01. ‘알약’, ‘신문로’는 음운 변동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여 각각 ‘allyak’, ‘Sinmunro’로 적는다. (○, ×)

Q02. 거센소리되기와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좋고’와 ‘합정’은 각각 ‘Johgo’와 ‘Hapjeong’으로 적어야 한다. (○, ×)

Q01. ○. 표의주의 표기란 형태소의 본디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 방법이다. ‘날아서’는 [나라서]로 발음되지만, 형태소의 원래 형태를 밝혀 ‘날아서’로 적는다. 따라서 표의주의 표기에 따른 결과가 맞다.

Q02. ○. ‘쓰- + -어’를 ‘써’로 적는 것은 모음 ㅡ의 탈락을 표기에 반영한 것, ‘줄- + -니’를 ‘주니’로 적는 것은 어간 받침 ㄹ의 탈락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둘 다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므로 표음주의 표기에 해당한다.

Q01. X. ㄹ이 덧나는 경우,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모두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알약’은 ‘allyak’으로 적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신문로’는 [신문노]로 발음되므로 ‘Sinmunno’로 적어야 한다.

Q02. X. ‘체언 내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좋고’는 체언이 아닌 용언이므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joko’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Q01. '강물이 흐르다.'에서 '흐르다'의 어간 '흐르-'는 '-어'를 만나면 그 형태가 변한다.
(○, ×)

Q02. '파랳다', '빨강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붙으면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의 형태도 변화한다.
(○, ×)

Q01. '훗일'은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준 것이다.
(○, ×)

Q02. '콧방귀'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준 것이다.
(○, ×)

Q03. '순대국'은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Q01. ○. '흐르-'에 '-어'가 붙으면 '흘러'가 된다. 어간 '흐르-'의 형태가 '흘르-'로 변하는 것이다.

Q02. ○. '파랳-', '빨강-'에 '-아'가 붙으면 '파래', '빨개'가 된다. 즉,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 '-아'의 형태도 변질된다.

Q01. X. '훗일'은 [훈닐]로 발음되며, 뒷말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옷을 적은 것이 맞다. 그러나 '훗일'의 '후(後)'는 한자어이므로, '훗일'이 고유어끼리 결합한 합성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Q02. ○. '콧방귀'는 고유어 '코'와 '방귀'의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어 [코뽕귀/콧뽕귀]로 발음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어 준다.

Q03. X. '순대'와 '국'은 모두 고유어이며, 그 합성어는 [순대국/순뎨국]으로 발음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순뎨국'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언어 13 종합④ p. 264~269 05 변형

Q01. ‘그는 마감을 4시까지로 알고 있었어.’에서 ‘4시까지로’는 조사끼리 결합하는 사례이다.

(○, ×)

Q02. ‘그 녀석 숨씨가 제법이다.’의 ‘제법이다’에서는 조사 앞에 체언이 오고 있다.

(○, ×)

언어 13 종합④ p. 264~269 06 변형

㉠ 철수는 영희와 윤지를 보러 갔다.

㉡ 나는 웃으면서 이쪽으로 오는 그를 향해 뛰어갔다.

Q01. ㉠을 ‘철수’가 ‘영희와 윤지’를 보러 갔다는 의미로 만들려면 ‘철수는’과 ‘영희와’ 사이를 끊어 읽으면 된다.

(○, ×)

Q02. ㉡에서 웃는 사람을 ‘나’로 한정하려면 ‘나는’과 ‘웃으면서’ 사이를 끊어 읽으면 된다.

(○, ×)

Q01. ○. 조사 ‘까지’와 ‘로’가 결합하는 사례이다.

Q02. X. ‘제법’은 체언이 아닌 부사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몇몇 부사에도 붙을 수 있다.

Q01. ○. ‘철수는’과 ‘영희와’ 사이를 끊어 읽으면 ‘영희와 윤지’가 묶이게 되며, 자연스럽게 ‘철수’가 ‘영희와 윤지’라는 두 사람을 보러 갔다는 의미가 되어 중의성이 해소된다.

Q02. X. ‘나는’과 ‘웃으면서’ 사이를 끊어 읽으면 ‘웃으면서 이쪽으로 오는 그’가 묶이게 되며, 웃는 사람은 ‘나’가 아닌 ‘그’로 해석된다.



CHAPTER7.

실전학습

실전학습 1회 p. 283 11 변형

Q01. '싫어'를 [시러]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결과이다. (○, ×)

Q02. '많다'를 음운 변동 전과 비교하면 음운의 수가 1개 줄어든다. (○, ×)

실전학습 1회 p. 284 12 변형

Q01. '헛소문'과 '헛하다'의 '헛-'은 접사로 명사와 동사 모두와 결합 가능하다. (○, ×)

Q02. '빋대다'와 '빋면'의 '빋-'은 유사한 의미로 명사나 동사 모두와 결합이 가능한 접두사이다. (○, ×)

Q01. X. '싫어'가 [시러]로 발음되는 것은 탈락의 결과이다.

Q02. X. '많다'는 [만:타]로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는데 축약 전과 후 음운의 수는 1개 줄어든다.

Q01. X. '헛소문'의 '헛'은 명사와 결합한 접사이지만 '헛하다'의 '헛'은 어근으로 접사 '-하다'와 결합하고 있다. 동사와 결합한 접사 '헛-'의 예로는 '헛디디다' 등이 있다.

Q02. O. '빋대다'와 '빋면'의 '빋-'은 '기울어지게 (기울어진)'의 의미로 명사나 동사 모두와 결합이 가능한 접두사이다.

실전학습 1회 p. 284 13 변형

- Q01.** '그건 세 살 꼬마도 알겠다.'의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
- Q02.** '나는 의사가 되겠다.'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

실전학습 1회 p. 285 14 변형

- Q01.** '너 어디 가니?'에 '응, 오랜만에 밖에 나가보려 해.'라고 대답했다면 '어디'는 부정칭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
- Q02.** '언제 AS가 가능한가요?'에 '4시 이후에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다면 '언제'는 부정칭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

- Q01.** ○. '그건 세 살 꼬마도 알겠다.'의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가 맞다.
- Q02.** X. '나는 의사가 되겠다.'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 Q01.** ○. '어디'에 대한 대답으로 특정한 곳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어디'는 부정칭 대명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Q02.** X. '언제'에 '4시 이후'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때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제'는 부정칭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너는 高麗 사람이었니 또 었디 漢語 너를 잘 ㉠하노
내 ㉡漢 사람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기 漢 말을 아노라.
네 뉘손디 글 비호다.
내 漢 학당의서 글 비호라.

-노걸대연해

〈현대어 풀이〉

너는 고려 사람인데 또 어찌 한어(중국말) 이름(말하기를) 잘하는가
내가 중국 사람에게 글을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중국말을 아노라.
너는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나는 중국 학당에서 글을 배웠노라.

- Q01.** ㉠ : 주어가 2인칭일 때 쓰이는 종결 어미가 쓰였다. (○, ×)
- Q02.** ㉡ : 무정 명사와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 ×)
- Q03.** ㉢ : 어근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미사가 쓰였다. (○, ×)

- Q01.** '가랑잎[가랑뽕]'에서는 한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 ×)
- Q02.** '줄넘기[줄럼끼]'에서는 한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변동이 두 번 일어난다. (○, ×)
- Q03.** '늑막염[능망념]'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난 예로 '학여울[향녀울]'을 들 수 있다. (○, ×)

- Q01.** X. 주어가 2인칭일 때 쓰이는 종결 어미는 '-니다'로 여기서는 '고'형 종결 어미가 쓰이고 있다.
- Q02.** O. 제시문에서 '스'은 '漢(중국)' 뒤에 쓰였으므로 무정 명사와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가 맞다.
- Q03.** O. '저기(적+이)'는 어근 '적'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Q01.** X. '가랑잎'은 ㄴ첨가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가랑뽕]으로 발음된다. 첨가와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난다.
- Q02.** O. '줄넘기'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줄럼끼]로 발음된다.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 Q03.** O. '늑막염'은 ㄴ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로, 학여울에서도 이와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실전학습 2회 p. 300 12 변형

Q01. '낮췄다'의 어간은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 (○, ×)

Q02. '가고, 가지, 가며'는 각각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 ×)

실전학습 2회 p. 300 13 변형

Q01.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다.'의 '다른'은 형용사이다. (○, ×)

Q02. '현 돈을 곱게 펴서 지갑에 넣었다.'의 '현'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다. (○, ×)

Q01. O. '낮췄다'의 기본형은 '낮추다'로 어간 '낮추-'는 어근 '낮-'과 접사 '-추-'로 나누어진다.

Q02. X. '가고, 가지, 가며'는 '가다'의 활용형으로 사전에는 기본형 '가다'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Q01. O. '다른'은 서술성이 남아 있는 형용사로 볼 수 있다.

Q02. X. '현 돈'의 '현'은 관형사로서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이라는 의미이다.

실전학습 2회 p. 301 14 변형

- Q01.** 악기를 직접 (만둣 or 만듬) : '만들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ㅁ'을 결합하면 '만둣'으로 써야 한다. (○, ×)
- Q02.** 아이가 크게 (울음 or 울) : '울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ㅁ'을 결합하면 '울음'으로 써야 한다. (○, ×)
- Q03.** 길을 (걸음 or 걸) : '걷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ㅁ'을 결합하면 '걸'으로 써야 한다. (○, ×)

실전학습 2회 p. 302 15 변형

- Q01.** 현대 국어 '머리카락'의 'ㄱ'은 중세 국어의 'ㅎ' 종성체언과 관련된다. (○, ×)
- Q02.** 현대 국어 '법씨'의 'ㅂ'은 '씨'의 중세 국어 형태인 'ㅼ'의 어두 자음군 'ㅼ'으로부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 Q01.** ○. '만들다'의 어간은 '만들-'이므로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면 '만듬'이 된다.
- Q02.** ×. '울다'의 어간은 '울-'이므로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면 '울'이 된다.
- Q03.** ×. '걷다'의 어간은 ㄷ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음'과 결합한 후 ㄷ이 ㄹ로 바뀌어 '걸'이 아닌 '걸음'이 된다.

- Q01.** ○. '머리카락'은 '머리'가 'ㅎ'을 맨 마지막 음으로 가지고 있어 뒷말의 'ㄱ'이 축약된 'ㄱ'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 Q02.** ○. '법씨'의 'ㅂ'은 'ㅼ'의 어두 자음군 'ㅼ'의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